

장수 명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8. 04.



장수군

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목 차 -

I. 조사개요	2
II. 장수군의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 배경	4
1. 자연·지리적 환경	4
2. 고고·역사적 배경	7
III. 조사내용	13
IV.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40
■ 문화재지표조사결과서	50

I. 조사개요

■ 조 사 명 : 장수 명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및 목적

장수군청에서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와 명덕리 일대에 홍수에 취약한 명덕천의 제방축조와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여 인가 및 농경지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명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장수군청은 사업시행 이전에 대상지역 내의 문화재 부존여부 및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과 장수군청은 2018년 4월 10일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가야문화연구소는 동일일에 조사에 착수하였다.

본 조사는 명덕천 하천재해예방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분포여부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사로 인해 훼손 위험이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 조사지역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887-1 ~ 명덕리 529-2

■ 조사면적 : 141,000m²

■ 조사기간 : 2018년 4월 10일 ~ 2018년 4월 15일
(현장조사 2일, 보고서 작성 1일)

■ 사업시행기관 : 장수군청

■ 조사단 구성

단장 및 책임조사원 : 곽장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조 사 원 :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준 조 사 원 : 유명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희(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이한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연구원)
유수빈(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보조연구원)

■ 조사방법

금번 지표조사는 사업대상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경 3 km 내의 매장문화재, 지상문화재, 민속자료, 건축자료 등의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의 성격 및 위치·조사범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사방법 등을 모색하였다. 그 후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에 관련된 문헌기록 및 고지도, 연구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명유래 및 전설, 유적의 분포현황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파악된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대상지 또는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의 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제작된 분포도를 기초로 유적의 잔존현황 및 신규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사업대상지를 도보로 조사하면서 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방법과 면담조사를 실시해 신규 유적의 존재, 구전, 지역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조사 시 유적과 관련된 흔적이 발견될 시 지형도에 위치를 표기하였으며, 사진촬영, 원고작성을 통해 현상을 기록하였다. 문헌, 현장조사를 마친 뒤,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해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장수군의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 배경

1. 자연 · 지리적 환경

전라북도의 동부 산악지대에 자리하는 장수군은 남북 44km, 동서 20km로 면적은 533.63㎢이며, 위도는 동경 127°42′ ~ 127°22′, 북위 35°49′ ~ 35°28′에 해당한다. 장수군 내에 거주하는 인원은 2017년 9월 기준 23,070명으로 알려져 있다. 연 평균기온은 11℃, 1월 평균기온 3℃, 8월 평균기온 24℃로, 일교차가 15~20℃가량으로 심한편이며, 연강수량은 1,910mm 내외이다. 고원상의 내륙분지가 많아 여름에는 서늘하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많다.

장수군은 남쪽에 남원시, 서쪽에 임실군과 진안군, 북쪽으로는 진안군과 무주군, 그리고 동쪽으로는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과 접해있다. 또한 진안고원의 일부로서, 모든 지역이 해발 400m 이상의 높은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상 장수군에 편입되어 있으나 지형 상 남원시와 동일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는 남서쪽의 산서면에만 구릉지대가 발달해 있다.

장수군의 경계를 이루는 동쪽에는 덕유산에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준령이 가로막고, 북쪽에는 두문산·어둔산·봉화산·고산, 서쪽에는 천반산·성수산·덕태산·선각산·팔공산·묘복산, 남쪽에는 신무산·사두봉·장안산 등의 고봉들이 둘러서 있다. 이 고봉들은 장수읍 남쪽에 위치한 수분치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장수군의 전 지역을 금강과 섬진강 수계권으로 갈라놓고 있다.

섬진강 수계권은 다시 오수천 유역의 산서지구와 요천 유역의 변암지구로 나뉜다. 양 지구 사이에는 험준한 산이 형성되어있어 서로 왕래하기 어렵다. 이 지역은 장수보다는 남원과의 교통이 편리하다.

먼저, 산서지구는 동쪽에 팔공산·묘복산·상서산, 북쪽에 영태산, 남쪽에 사계봉·성산·응봉산 등의 고봉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 내린 지류들이 모여 구릉지대가 발달해 있다. 특히 팔공산에서 상서산까지 남북방향으로 뻗은 능선이 험준하여 지형상으로는 장수읍과 별개의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묘복산과 상서산의 북서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오수천을 따라 그 양쪽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산서지구는 구릉지대와 들판이 발달해 북서쪽에 위치한 임실군과 남쪽의 남원시와는 지형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지역권¹⁾을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변암지구는 장수에서 지형이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요컨대 동쪽에는

1) 다시 말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원시, 임실군과 장수군으로 그 소속을 달리하고 있지만, 지형 상으로 서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장애물이 거의 없다.

백두대간의 준령을 따라 백운산·월경산·봉화산, 북서쪽에는 장안산·사두봉·신무산 등으로 연결되는 험준한 능선이 외곽을 감싸고 있다. 변암면 소재지인 노단리를 비롯하여 대론리와 교동리 일대에 형성된 협장한 들판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장안산과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 백운천이 팔공산과 수분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지류와 노단리에서 만나 요천의 상류를 이룬다. 장수읍 대성리와 식천리는 해발 500m 내외의 전형적인 고원지대로 행정 구역상 장수읍에 편입되어 있지만, 수계상으로는 섬진강 수계권에 속한다.

금강 수계권은 백두대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능선을 경계로 장수·장계·계북지구로 세분된다. 그런데 이들 지구는 서로 경계를 이루는 능선이 그다지 험준하지 않고 고개와 지류를 따라 교통로가 잘 갖춰져 서로 왕래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장수지구는 장수읍과 천천면이 해당된다. 수분치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장수천을 따라 들판과 구릉지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장수읍이 상류에 자리하고 그 북쪽에 천천면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형상 동일 지역권을 이루고 있는데, 동쪽에는 사두봉·장안산·법화산으로 곧장 연결되는 능선이 장계분지와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서쪽에도 성수산부터 팔공산까지 남북방향으로 뻗은 능선이 진안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서쪽을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다. 장수읍 장수리·송천리·노하리 일대에는 장수지구에서 가장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특히 장수읍 동촌리와 노곡리는 사방이 험준한 능선으로 둘러 싸여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천천면 남양리·삼고리 일대에도 장수천을 따라 남북으로 긴 들판이 넓게 발달해 있다.

장계지구는 장계면과 계남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백화산에서 장계면 소재지까지 뻗은 지류와 장계천이 경계를 이룰 만큼 지형 상으로는 동일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장계면은 남덕유산과 옥십령²⁾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장계천을 따라 들판이 발달해 있으며, 그 주변에도 구릉지대가 폭 넓게 펼쳐져 있다. 장계면의 남쪽에 위치한 계남면도 장안산의 북쪽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계남천을 따라 역시 들판이 발달해 있다. 그런데 장계지구는 동쪽에 남덕유산·깃대봉·장안산, 북쪽에 깃대봉·수락봉·시루봉, 남서쪽에 법화산·장안산 등의 고봉들이 하나의 능선으로 연결되어, 그 외곽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천혜의 요새지를 이룬다.

계북지구는 지형 상 계북면과 무주군 안성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계북면은 백두대간의 서쪽에 자리하여 다른 지구와 달리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장수군 계북면 북쪽에 인접된 무주군 안성면도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릉지대가 매우 발달해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행정 구역으로 서로 소속을 달리하고 있지만 구릉지대가 경계를 이룰 정도로 지형상으로는 동일 지역권을 이루고 있다. 계북면 양악리와 안성면 장기리·덕산리에 구량천을 따라 협장한 들판과 그 주변에 구릉지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백두대간 준령에 위치한 고개로 금강과 남강의 발원지를 이룬다. 즉 서쪽 기슭에서는 장수천이 시작하여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 기슭에서는 남강의 상류를 이루는 남계천이 발원해 남동쪽으로 흐른다.

2. 고고 · 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장수군은 장수천과 장계천이 각각 북쪽으로 흘러가며 넓은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지방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 정상부에 위치한 월성치, 옥십령, 짓재 등의 고개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상의 요충지를 이룬다. 이와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장수군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수군의 문화유적은 197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문화유적조사³⁾를 시작으로 1988년 장수군 문화재 지표조사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⁵⁾와 익산-함양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⁶⁾, 2000년 장수군 문화유적 지표조사⁷⁾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적을 비롯하여 지석묘 14개소를 비롯한 85개소의 고분군, 34개소의 요지, 38개소의 유물산포지 등 180여 개소의 문화유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계면 삼봉리에 25기, 월강리에 20기, 계남면 호덕리 20기, 화양리 1기, 장수읍 동촌리 40기, 대성리 2기 등 1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장수군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인근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인 정천면 진그늘에서 구석기시대 유적⁸⁾이 조사되어 그 존재 가능성이 높았던 바, 2003년 장수지역 최초로 침곡리 구석기유적⁹⁾이 조사됨으로써 장수군의 구석기시대 문화가 확인되었다.

장수군에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는 1997년에 천천면 남양리 농지정리사업 현장에서 수습된 빗살무늬 토기편¹⁰⁾과 천천면 월곡리 월곡초등학교 북쪽, 월곡리 반월마을 입구 농지정리사업 현장에서 수습된 빗살무늬 토기편 및 석기류를 통해 알 수 있다¹¹⁾. 아쉽게도 유구가 심하게 유실되었거나 훼손된 상황이었으나, 수습된 유물의 속성이 인근의 진안 갈머리¹²⁾ · 진그늘¹³⁾ · 용암리¹⁴⁾ 유적을 비롯한 남해안, 혹은 영남지방의 서부 내륙 출토품과 상통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3)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하권.

4)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88, 『장수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전라북도 · 장수군 · 전북향토문화연구회.

5) 전북대학교박물관 · 군산대학교박물관, 2000,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 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도로공사.

6) 호남사회연구회, 1998, 『군산-함양(소양-장계간)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도로공사.

7)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장수군의 문화유적』, 전라북도 · 장수군.

8) 조선대학교박물관, 2000, 『진안 진그늘 구석기시대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

9) 전북대학교박물관, 2007, 『장수 침곡리 구석기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10) 지건길, 1990, 「장수 남양리 출토 청동기·철기 일괄유물」, 『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1) 윤덕향 · 강원종, 2001, 「장수 월곡리 장적 2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장수 월곡리유적」, 『유적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pp. 15~55.

12) 안승모 · 이영덕 · 김대성, 2003, 『갈머리 유적』, 진안용담댐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XIII (재)호남문화재연구원 · 진안군 · 한국수자원공사.

13) 김은정 · 김선주, 2001, 「진안 진그늘 구석기 유적」, 『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호남고고학회, pp 99~100.

14) 이상균, 1998, 「호남지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대외교류」,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호남고고학회, pp 60~62.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지석묘는 금강의 지류인 장수천·장계천과 섬진강의 지류인 오수천을 중심으로 20여 개소, 140여기 정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농지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유실되었고¹⁵⁾, 지금은 삼봉리 탁자식 지석묘¹⁶⁾를 비롯하여 10여기의 지석묘만 보존되고 있다. 또한, 침곡리유적에서 최초로 지석묘가 발굴조사되어, 말각장방형의 묘역을 갖춘 개석식 지석묘가 확인되었다¹⁷⁾.

장수군에는 삼한의 소국과 관련된 세력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1989년 천천면 남양리에서 이 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었으며, 1997년에는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5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세형동검, 검파두식, 세문경과 같은 청동유물과 철부, 철사 등의 철기류, 석기류, 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3기의 묘에서는 청동유물과 철기류가 공반 출토되었으며, 등대에 새발자국 모양의 무늬가 양각된 세형동검이 출토된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¹⁸⁾. 그리고 법화산의 북동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 침곡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비정되는 평면형태가 원형 혹은 타원형을 띠는 3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¹⁹⁾. 침곡리 유적의 조사는 아쉽게도 도로공사 구역에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생활유적이 구릉지대에 입지를 두는 등 강한 지역성을 보여주었다.

장수군의 원삼국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는 2002년 계남면 농촌용수로 개발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가 있다²⁰⁾. 이 시굴조사에서는 평면형태가 방형을 이루며, 길이가 630cm에 달하는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2005년에는 장수 거점단지 유통센터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원삼국시대 토광묘 6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 내에서는 격자문이 타날된 원저단경호와 이중구연호, 철부, 철검, 철도,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²¹⁾.

1996년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장수 삼고리유적²²⁾에서는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던 세력집단이 6세기 초엽까지 백제가 아닌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는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고령양식으로 상징되는 가야계 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족기와 같은 백제계 토기가 일부 포함된 토기 조합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3년에는 삼봉리 고분군과 동촌리 고분군²³⁾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가야계 중대형 고분이 분포되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삼은 세력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삼봉리 고분군에서는 봉토의 중앙부에 자리한 주석곽을 중심으로 2기의 순장곽과 이들 순장곽 사이에 장란형토기를 잇대어 놓은 옹관묘가 배치된 다장식의 고분이 조사되었고, 동촌리 고

15) 윤덕향, 2000, 『남양리』, 전라북도장수군·전북대학교박물관.

16) 전영래, 1979, 「장수 삼봉리 북방식 지석묘」, 『전북유적조사보고』 제10집, 전주시립박물관, pp 37~39.

17) 군산대학교박물관, 2006, 『장수 침곡리 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18) 윤덕향, 2000, 『남양리』, 전라북도 장수군·전북대학교박물관.

19) 군산대학교박물관, 2006, 『장수 침곡리 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 군산대학교박물관, 2002, 「장수오동지구농촌용수개발공사구역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농업기반공사 남원지사.

21) 군산대학교박물관, 2008, 『장수 침곡리 마무산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장수군.

22) 곽장근·한수영, 1997, 『장수 삼고리 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3)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장수군·문화재청.

분군에서는 15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동촌리 3-2호분의 무투창유개고배와 9호분의 직구호 등의 백제토기가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부장된 점에서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은 6세기 초엽까지도 백제에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장수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관방유적과 제철유적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진 장수군의 성과 봉수는 모두 29개소에 이른다. 성은 12개소로 번암면에 유정리 산성 A·B, 짓재 토성, 산서면에 봉서리 산성, 장수읍에 용계리·대성리 산성, 계남면에 침곡리 산성 A·B, 장계면에 대곡리·명덕리·삼봉리 산성이 있고, 남원과 경계를 이루는 능선에 성리 산성이 있다.

봉수는 14개소로 번암면에 봉화산·매봉·영취산 봉수, 산서면에 사계봉 봉수, 장수읍에 장안산·사두봉 봉수, 천천면에 봉화산 봉수, 장계면에 봉화산·할미봉·깃대봉·수락봉 봉수, 계북면 깃대봉·매봉 봉수가 있다²⁴⁾.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전북 동부지역의 분포양상이 장계·장수분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봉수에서 수습된 유물 대부분이 삼국시대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부지역의 봉수는 삼국시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백제에 복속되기 이전에 이미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 있었음이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봉수들은 이 세력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⁵⁾.

전북지역은 그동안 철 생산과 무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실시된 지표조사를 통해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130개소 이상의 제철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장수는 총 60개소의 제철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북지역 중 밀집도가 가장 높다. 유적은 주로 백두대간 및 인근 산줄기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며, 그 범위는 직선거리로 약 40km에 달한다. 행정구역 상 번암면 지리리에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

유적은 대체로 계곡 내부 또는 산줄기 하단의 평탄대지에 입지하는데, 이곳은 철 생산에 필요한 원료(철광석 등), 연료(숯), 수원(계곡천, 물), 작업공간 등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제철유적이 입지하는데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철유적이 입지한 곳은 대체로 철(鐵)이 매장되었을 확률이 높고, 기반암이 철광석을 포함한 흑운모편마암과 반상변정편마암인 것으로 볼 때, 주변에서 산출되는 원료를 기반으로 철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²⁶⁾.

지표에서 철 생산 시 발생하는 찌꺼기인 철재(鐵滓, Slag)가 다량 수습되는 것으로 볼 때, 유적에서는 주로 원료에서 1차적으로 철을 뽑아내는 제련(製鍊) 공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제철유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유적의 성격 및 운영시기에 대한 구체적

24) 군산대학교박물관, 2002, 『장수군의 산성과 봉수』, 장수문화원·군산대학교박물관.

25) 조명일, 2009, 『전북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장현근, 2016, 「장수군 제철유적의 지질학적 특성」, 『학술심포지엄 자료집-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말하다』, 호남고고학회·(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pp 24~26.

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제철유적과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 철기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장수 남양리 유적과 가야계 고총인 삼봉리 고분군 등에서 상당량의 철기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이들 유적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장수군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은 『삼국사기』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제 때 장계면은 백해(이)군, 장수읍에는 우평현이 설치되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는지 또는 백제의 지방통치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으며, 의자왕 20년(660) 백제가 신라에 멸망하고, 이들 지역은 신라에 편입되었다. 이후 신라는 경덕왕 16년(757), 당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그 영속체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계획으로 전국의 모든 지명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이 때 백해(이)군은 벽계군(壁溪郡)으로 고쳐 진안과 고택을 영현으로 두었으며, 우평현은 고택현(高澤縣)이라 고쳐 벽계군의 영현이 되었다. 이후 혜공왕 12년(776)에는 지명이 다시 바뀌는 과정에서 벽계군과 고택현은 백해(이)군, 우평현으로 환원되었다.

장수군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아 통일신라시대 장수군의 모습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일신라 때는 석실분을 변형시킨 고분과 불교의 영향으로 시신을 화장한 후 뼈단지를 묻어 주는 화장묘가 유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의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고분군²⁷⁾과 부귀면 오룡리 고분군²⁸⁾에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와 석실분이 조사되어 장수군에서도 이 시기의 분묘유적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적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초기에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다가 현종 9년(1018)에 비로소 항구적인 지방 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전국을 경기(京畿)와 호경(好景), 그리고 두 개의 계수관도(界首官道)로 정연하게 나눈 것이었다. 이 때 전국의 지명을 다시 중국식의 한자명으로 고치면서 우평현은 장수현(長水縣), 백해(이)군은 장계현(長溪縣)이라 바뀌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문헌에 장수와 장계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장수현과 장계현에는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으며, 계북면 양악리에 있던 양악소, 천천면 남양리 일대에 두었던 이방소(梨方所), 천천면 와룡리 일대로 비정되는 천잠소(天蠶所), 장수읍 대성리 일대로 추정되는 복흥소(福興所) 등과 함께 모두 남원부(南原府)에 속하는 속현이 되었다. 이러한 지방 통치 제도는 고려 말까지 지속되다가 공양왕 3년(1391) 장수현과 장계현이 감무관으로 독립되었고, 그 부근의 양악소 등이 두 현의 임내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장수현은 감무관으로 독립되었지만 실제로는 감무가 파견되지 않아 장계현의 감무가 겸임하였다.

장수군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큰 변화가 있었다. 태조 1년(1392)에는 고려시대와는 다르

27) 곽장근·한수영·조인진, 1998, 『진안 평지리 고분군』-1997년도 발굴조사-, (재)백제문화개발연구원·군산대학교박물관.

28) 곽장근·조인진, 2001, 『진안 오룡리 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계 장수현의 감무가 장계현을 다스렸으며, 곧이어 양악소, 이방소, 천잠소, 복흥소 등과 함께 장계현은 고을 자체가 폐지되어 장수현의 직촌이 되었다. 즉,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군(郡)이 설치되었고, 고려 때도 현(縣)으로 존속되었던 장계현이 없어지고 양악소를 비롯한 4개의 소(所)와 함께 모두 장수현 하나로 통합되었다.

장수현은 태종 3년(1413) 감무가 현감으로 바뀌고는 조선시대 말까지 별다를 변동이 없었다. 조선 초기의 계수관제에서는 남원 계수관의 관할이었고, 세조 12년(1466) 이후의 진관제에서는 남원 진관에 속하였으며, 왜란과 호란 이후에 별도로 신설된 진영제에서도 전라도 좌영에 속하였다. 고종 32년(1895)에 단행된 지방통치제도의 개편 때, 장수현이 장수군으로 되어 남원부에 속했다가 그 이듬해 13도의 설치로 전라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광무 10년(1906)에는 남원군 산서면·번암면이 편입됨으로써 대체로 오늘날과 같은 영역이 형성되었으며, 1970년에는 장수군 대성리에 대성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는 1979년 5월 1일에는 전국의 군청소재지를 읍으로 바꾸는 조치에 따라 장수면이 장수읍으로 승격되었고, 1993년에는 계내면이 장계면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지금은 장수읍을 비롯하여 산내면·번암면·계남면·계북면·장계면·천천면 등 1읍 6개면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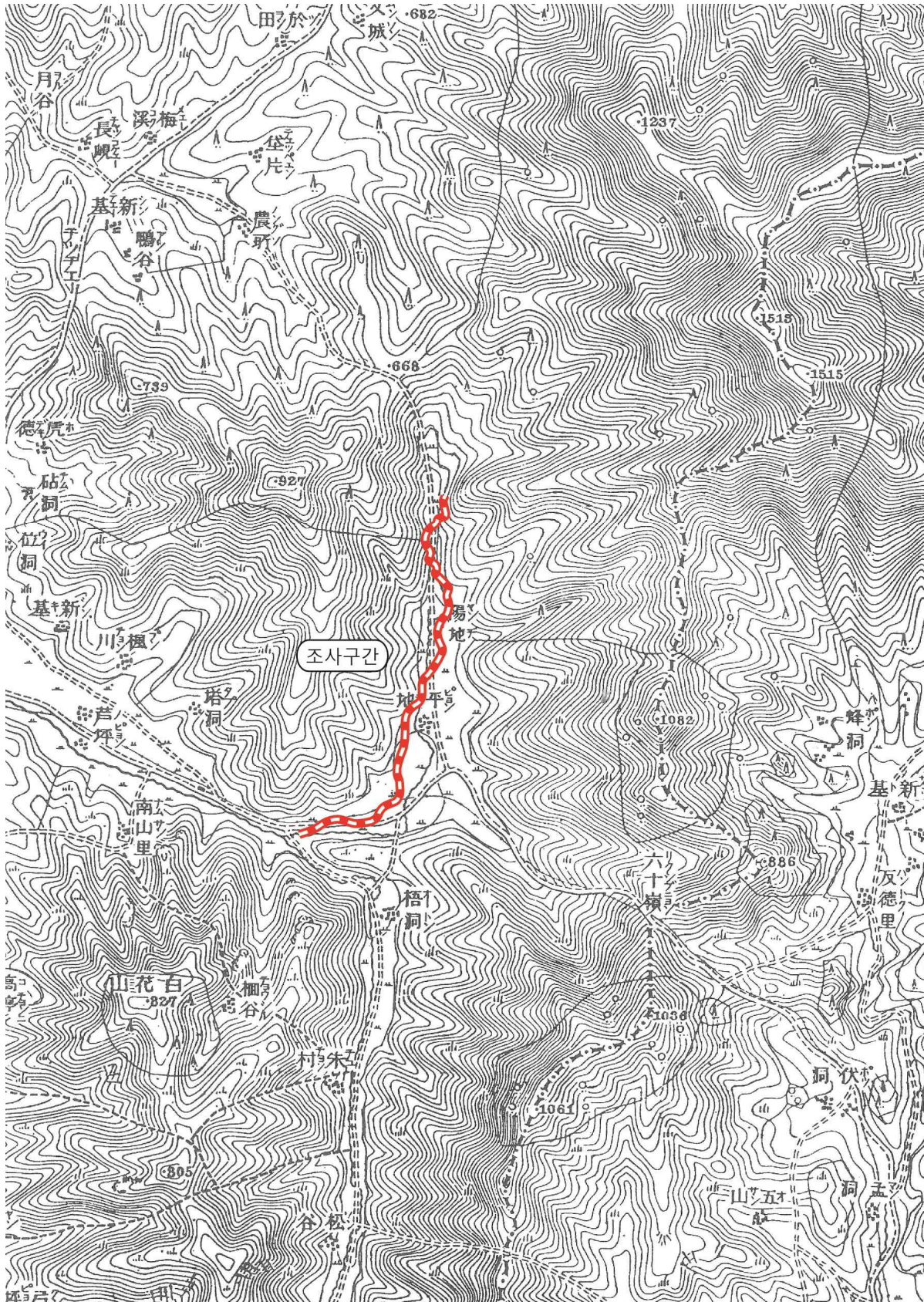


그림 1. 1896년(명치 29년) 제작 지형도



그림 2. 조사구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Ⅲ. 조사내용

이번 지표조사는 장수군청에서 추진 중인 명덕천 재해예방사업에 앞서 문화재의 부존여부 및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업대상구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887-1에서 명덕리 529-2번지에 해당하는 4.7Km의 구간이며,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은 141,000㎡이다. 사업은 명덕천 주변으로 하폭을 평균 1~2m로 늘리고, 현재 설치된 홍수방지벽을 평균 4m로 보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북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장수군은 ‘진안고원’의 일부로서 덕유산에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동쪽 경계를 이루면서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과 접경한다. 전북과 경남의 도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 산줄기에 하단부에 명덕천이 흐르고 있으며, 명덕천 동쪽으로는 백두대간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육십령이 자리한다. 명덕천은 백두대간의 산줄기에 위치한 남덕유산의 남서쪽 기슭에 발원하여 장계면 명덕리까지 흐른다. 명덕천이 흐르는 명덕리 북쪽에는 지보재가 있으며, 이 고개는 육십령을 넘어온 사람들이 북쪽의 계북면과 무주군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만 했다. 이처럼 명덕천 주변지역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십령과 지보재 등 주요 고개가 그 주변에 자리하여 교통의 중심지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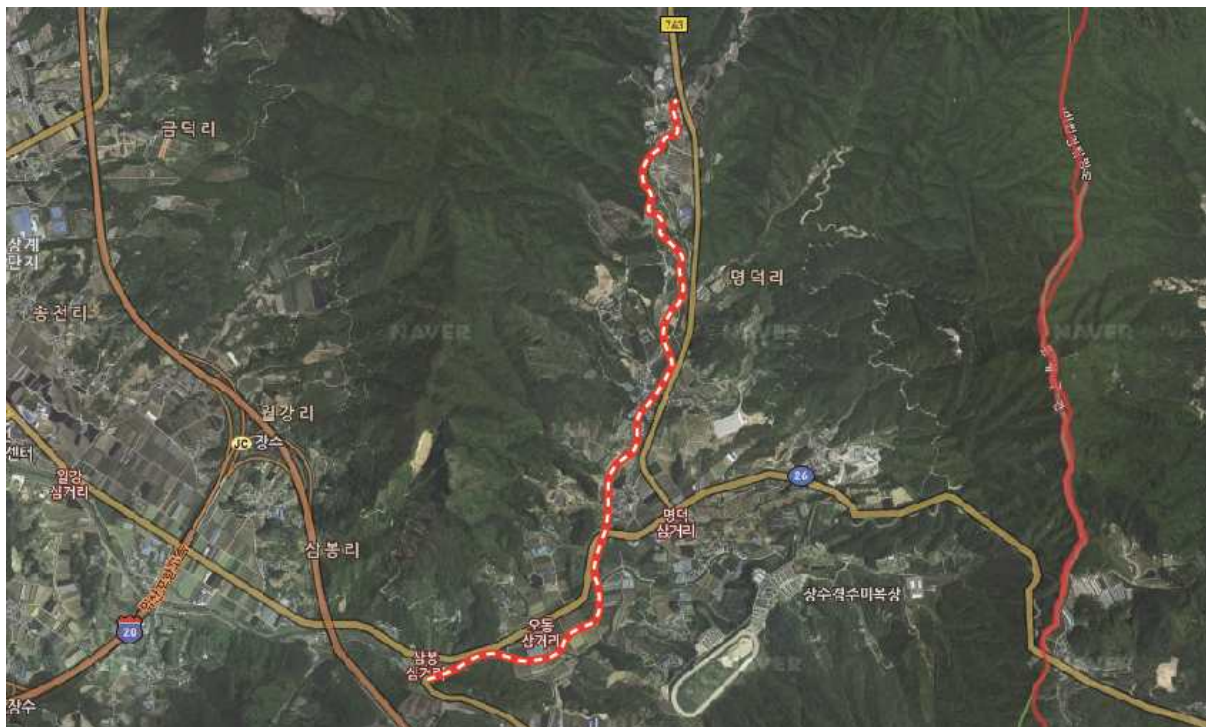


그림 3. 조사구역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참조)

사업대상구역은 장계면 소재지에서 26번 국도를 따라 3Km 정도 떨어진 삼봉삼거리의 오동교에서부터, 명덕천을 따라 북쪽으로 4.7Km 떨어진 명덕리 동명마을이 해당된다. 명덕천은 오래전부터 하천정비가 진행되어 제방이 조성된 곳으로, 이미 지형의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덕천 주변으로는 무성한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다.

조사단은 사업대상구역에 대해 임의적으로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표조사는 사업대상구역에 직접적으로 편입된 구역 뿐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단에서는 본격적인 현지조사에 앞서 사업대상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기록 및 지도, 연구자료 등으로 수집하여 이를 검토하였는데, 사업대상구역 일대는 오래전부터 하천을 따라 하천정비가 이루어져 있었다. 사업대상구역에는 어떠한 문화재도 확인된 바가 없으며, 대상지역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만 비석이나 유물산포지 등의 유적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현지를 직접 도로로 답사하면서 문화재의 흔적을 찾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문화재와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명덕천을 따라 하천정비가 이루어져있었기 때문에 본래부터 문화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대상구역 내에는 고고, 역사, 민속, 고건축 등의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장수군 명덕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대상구역에서는 문화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조사구역의 주변으로는 약 40여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금번 지표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변유적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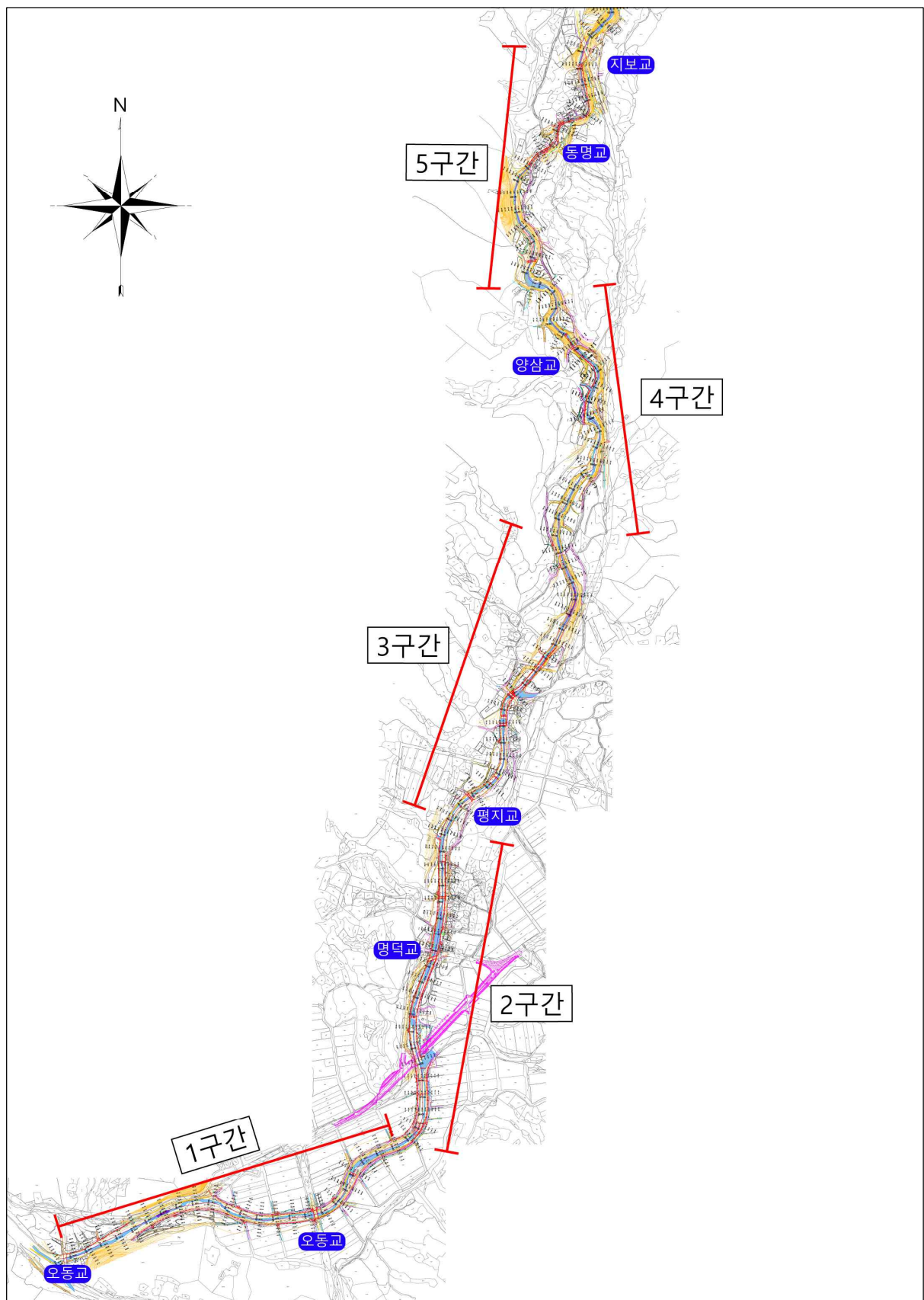


그림 4. 조사구역 구간별 계획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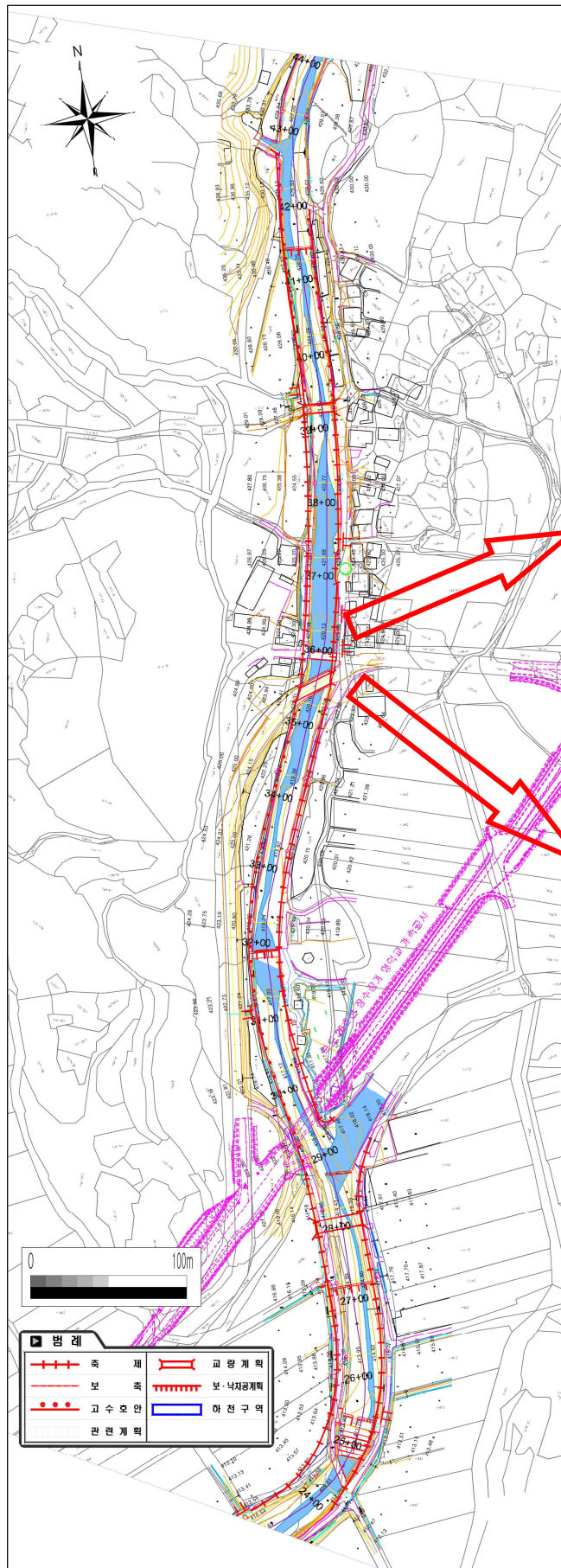


그림 4. 2구간 평면계획도



2번 구간 전경(명덕교에서 남→북 방향)



2번 구간 전경(명덕교에서 북→남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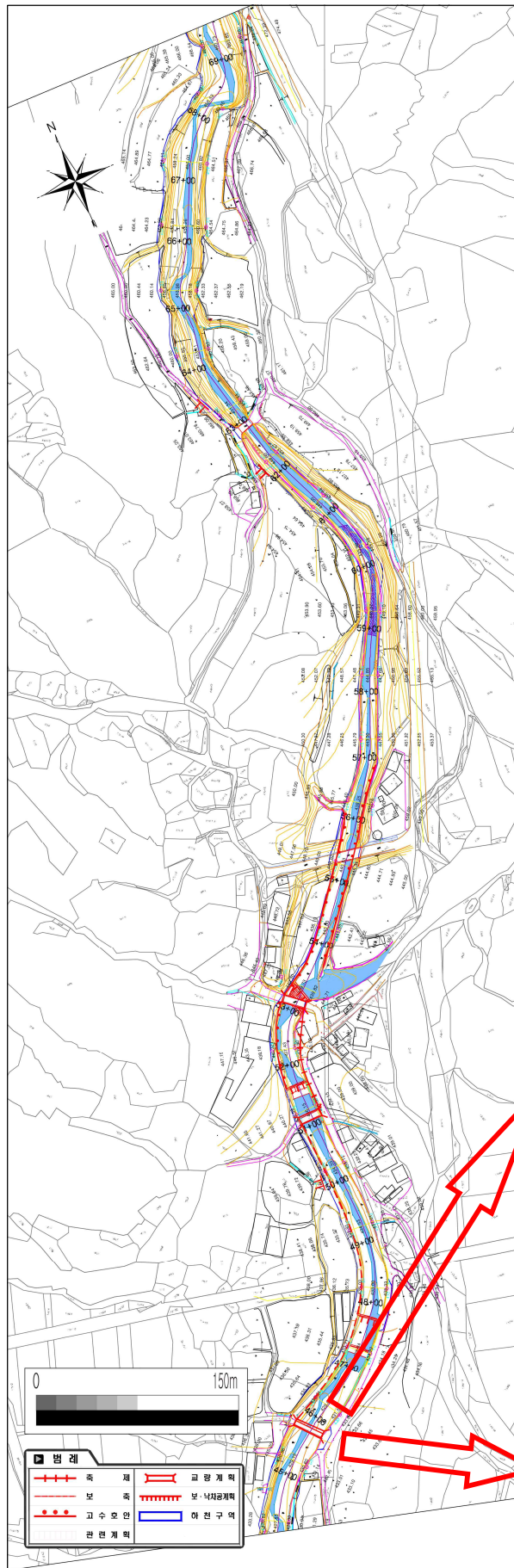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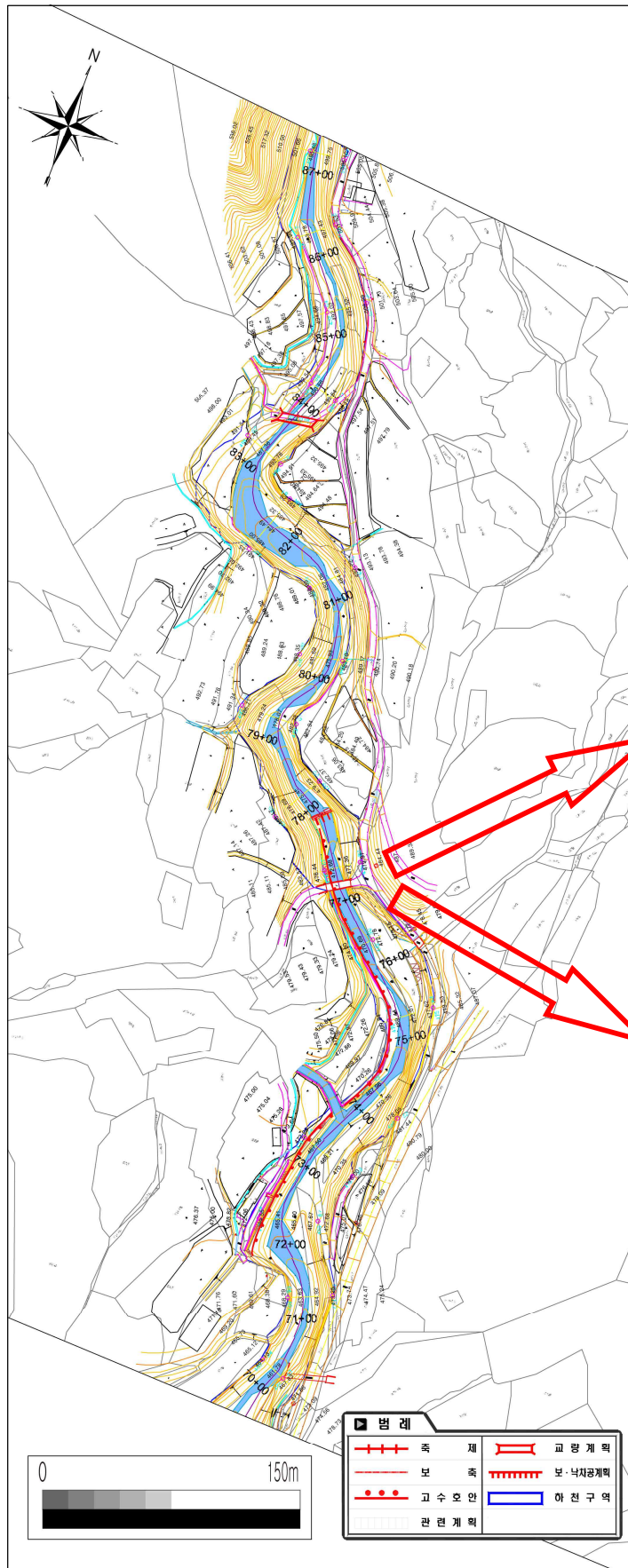
그림 5. 3구간 평면계획도



3번 구간 전경(평지교에서 남→북 방향)



3번 구간 전경(평지교에서 북→남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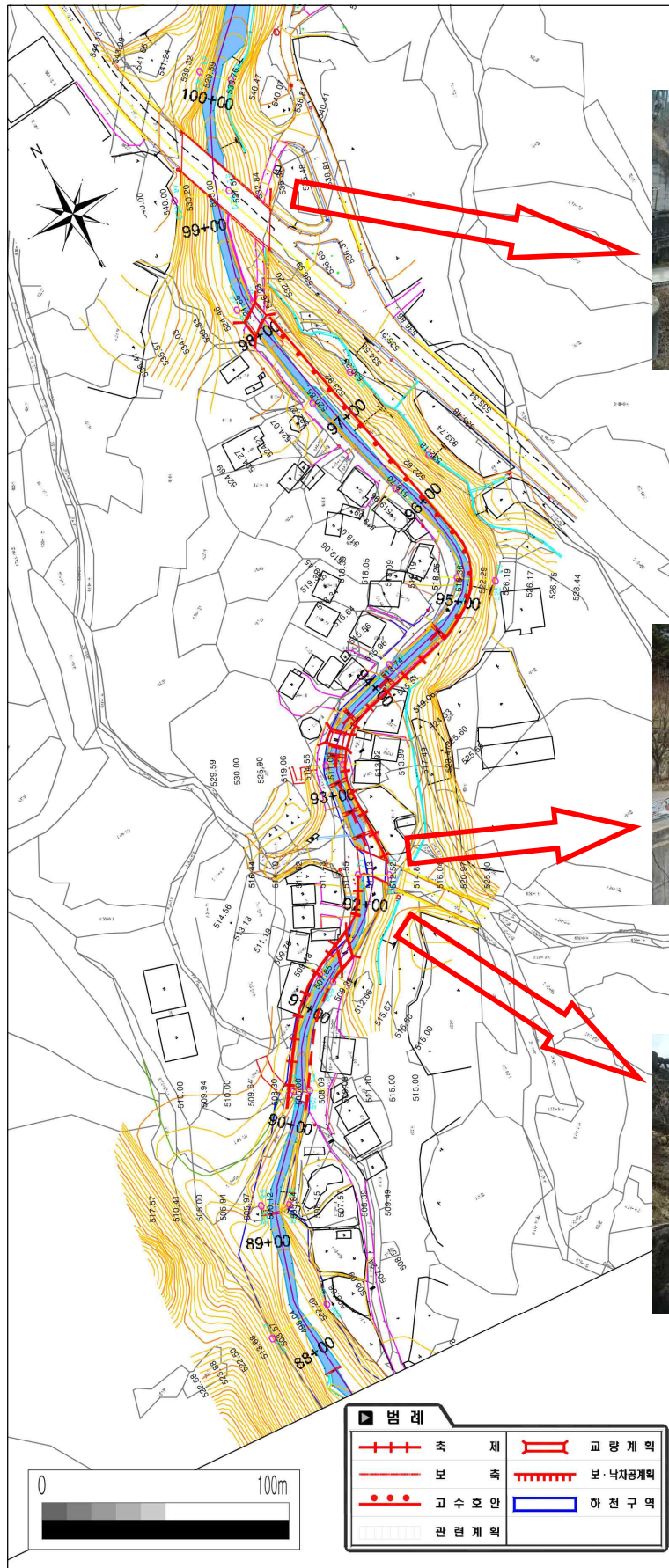


4번 구간 전경(양삼교에서 북→남 방향)



4번 구간 전경(양삼교에서 남→북 방향)

그림 6. 4구간 평면계획도



5번 구간 끝(지보교) 전경 (북→남 방향)



5번 구간 전경(동명교에서 남→북)



5번 구간 전경(동명교에서 북→남)

그림 7. 5구간 평면계획도

1. 주변유적의 현황²⁹⁾

■ 자락정(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29호. 1990년 6월 30일)

○ 소재지 : 조선

○ 시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942번지

○ 개요 : 조선시대 사인 김영호, 감사 박수기 등이 처음 지었으나, 1924년에 양쪽 집안의 후손들이 낡은 것을 고쳐 지었다. 건물은 앞면 2칸·옆면 2칸 규모이다. 아름다운 주위 경관, 풍천의 맑은 물과 섬과 같이 치솟은 석벽에 정자가 조화되어 가히 제일경으로 손꼽히고 있다.

○ 이격거리 : 약 1,800m

1) 할미봉 봉수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

○ 시대 : 미상

○ 개요 : 장수군 장계면과 경남 함양군 서상면을 잇는 중요 교통로인 육십령에서 백두대간 주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할미봉(1026.4m)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남쪽의 장수 구시봉·영취산·장안산 봉수, 서쪽의 장수 수락봉 봉수가 한 눈에 조망되며, 남쪽으로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장수 명덕리 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봉수가 위치한 할미봉 정상부의 동쪽 기슭은 자연 암반층으로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과 북쪽은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석축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또한 산 정상부에 직경 20cm, 깊이 10cm로 파놓은 구멍이 있는데 봉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산 정상부에서 문양이 시문되지 않고 기벽이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이격거리 : 약 2,400m

2) 명덕리 산성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 일원

○ 시대 : 삼국

○ 개요 : 장계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남쪽에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있다. 백화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육십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장계천에 이르러 절벽을 이룬다. 명덕리 산성은 산정식 산성으로 ‘시루봉’이라고 불리는 남산에 위치하고 있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고, 평면형태는 원형을 이루며, 성의 둘레는 340m 내외이다. 산성의 남쪽부분은 성벽의 흔적이 14m 정도가 잘 남아 있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외면을 약간씩 다듬은 할석을 가로방향으로 눕혀 쌓았고, 산 경사면을 따라 내탁식으로 축조하였다. 유물은 성 내부와 붕괴된 석재들 사이에서 삼국시대 기와편과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 이격거리 : 약 2,600m

29) 문화유적 분포지도

3) 육십령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23-18

○ 시대 : 미상

○ 개요 : 영호남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고갯길로 달리 육십현 혹은 육북치라고도 불린다. 삼국시대 때 ‘산이 깊고 숲이 울창해서 도둑과 산적이 들끓어 육십명이 모여야만 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두대간의 할미봉과 구시봉(혹은 깃대봉) 사이에 움푹 들어간 안부에 자리한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와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경계로 금강의 장계천과 남강의 남계천을 갈라놓는다. 백두대간의 서쪽지역에서 진안군과 장수군 장계면을 경유하여 남강 혹은 황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했던 중요한 관문이다. 육십령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명덕리 산성과 할미봉 봉수, 남쪽에는 구시봉(봉화산) 봉수, 동쪽에는 사근산성(혹은 방지산성)과 황석산성 등 관방유적과 통신유적이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 4km 남짓 떨어진 장계분지에는 6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봉토분이 밀집 분포된 장수 삼봉리·월강리·호덕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 이격거리 : 약 2,800m

4) 깃대봉 봉수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4

○ 시대 : 미상

○ 개요 : 월강리 신기마을 북동쪽에 있는 깃대봉 정상부(930.3m)에 자리하고 있다. 깃대봉은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와 계북면 매계리의 경계로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멀리 진안과 무주지역에 자리한 봉수까지도 잘 조망된다. 특히 북동쪽의 장수 할미봉 봉수, 남동쪽의 장수 봉화산 봉수, 서쪽의 장수 수락봉 봉수 등이 한눈에 잘 들어온다. 현지 조사에서는 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구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정상부가 매우 편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벽이 비교적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봉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격거리 : 약 1,800m

5) 금덕리 사지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7

○ 시대 : 미상

○ 개요 : 도장골마을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깃대봉 남서쪽 기슭 중단부에 ‘빈대절터’라고 전해지는 절터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잡목이 우거져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文化遺蹟總覽』에도 ‘탐재로 보이는 파괴된 개석 두 개가 있다’고 보고된 점에서, 주민들의 증언대로 이곳에는 절터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이격거리 : 약 2,000m

6) 명덕리 고분군A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588-2 일원

○ 시대 : 고려

○ 개요 : 장계면과 계북면의 경계를 이루는 깃대봉 동쪽 기슭 말단부에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즉 양삼마을에서 북서쪽으로 250m 남짓 떨어진 곳으로, 현재는 '벤엘 장애인의 집'이 들어서있다. 유적은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벤엘 장애인의 집'이 들어서기 전 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지금부터 10년 전 창을 든 도굴꾼이 여러 차례 다녀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로 네모지게 벽석을 쌓고, 그 위에 납적한 돌을 올려놓은 고름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증언이나 지형적인 속성으로 볼 때, 여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고분과 관련된 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 이격거리 : 약 494m

7) 명덕리 유물산포지B

○ 소재지 : 장계면 명덕리 920-1번지 일원

○ 시대 : 삼국~조선

○ 개요 : 장계면소재지에서 26번 국도를 따라 육십령방향으로 5km 가량 진행하다보면 명덕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743번 지방도를 따라 700m 가량 가면, 동쪽에 양삼마을이 자리한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고봉인 할미봉(해발 1012.9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하단부로 일부 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양삼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서당앞들'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에는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삼국시대 토기편과 고려토기편, 자기편, 그리고 기와편 등이 산발적으로 수습되었다.

○ 이격거리 : 약 500m

8) 명덕리 지석묘A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95-85

○ 시대 : 청동기

○ 개요 : 전북과 경남의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은 서쪽 기슭이 가파른 지형을 이루다가 중단부에서 완만한 지형으로 바뀐다. 그 중단부에서 하단부까지 구간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모든 지역이 농경지로 개간되었거나 민묘구역으로 조성되었다. 지석묘는 이미 밭으로 개간된 지역의 독에 자리하고 있는데, 장계면 소재지에서 육십령으로 가는 26번 국도의 좌측에 해당된다. 모두 4기의 지석묘 중 한 기를 제외하면, 다른 지석묘는 상석이 밭독에 자리하여 모두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석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지석묘는 두 개의 지석이 상석을 받치고 있는데, 길이 230cm, 두께는 41cm이다.

○ 이격거리 : 약 756m

9) 명덕리 유물산포지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885 일원

○ 시대 : 조선

○ 개요 : 명덕리 중앙에 자리한 평지마을 동쪽에는 이미 농경지로 개간된 구릉지대가 발달해 있다. 특히 원명덕마을 사이에는 평탄한 지형을 이루는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백자편, 기와편 등이 혼재된 상태로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수습된 유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양지마을 서쪽 기슭에도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렬과 봉토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 이격거리 : 약 615m

10) 명덕리 느티나무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390

○ 시대 : 미상

○ 개요 : 명덕리 평지마을 중앙을 관통해 흐르는 실개천 옆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일부 선비들이 당쟁으로 인해 이곳에 피신하여 있을 때 이조 참판을 지낸바 있는 이일삼이란 사람의 집에서 머물며 생계를 유지하다 헤어지면서 정성에 보답하는 의리로 선비들이 식재하였다고 한다. 나무 아래 '이일삼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수령 350년, 수고 8m, 흉고 둘레 800cm이다.



○ 이격거리 : 약 25m

11) 전참판이일삼공덕비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387-10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 개요 : 명덕리 평지마을 느티나무 옆에 자리하고 있다. 비신 정면에는 '前參判李日三功德碑'가 종으로 음각되어 있다. 개석은 팔작지붕형태로 얹어 있으나, 비신의 상면이 아치형을 이루고 있고 개석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대에 개석을 얹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비석 주위에는 벽돌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양호하지 않다. 이 비석은 丁丑年(1937)에 세워 졌다. 비의 옆에 자리한 느티나무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 이격거리 : 약 25m

12) 명덕리 지석묘B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066-3

○ 시대 : 청동기

○ 개요 : 백두대간 서쪽 기슭의 말단부에 위치한 원명덕마을 입구에 한 기의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육십령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통과하는 곳으로 육십령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장계천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길게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석묘는 명덕초등학교에서 원명덕마을로 들어가는 농로의 좌측에 자리잡고 있는데, 상석의 바닥이 땅에 파묻혀 지석의 존재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장계천과 평행되게 동서로 두었으며, 그 상면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성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다른 지석묘의 존재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길이 221cm, 폭 108cm, 두께는 72cm이다.



○ 이격거리 : 약 560m

13) 명덕리 고분군B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34 일원

○ 시대 : 고려

○ 개요 : 소백산맥의 준령에 위치한 깃대봉 북쪽 기슭 여러 갈래의 지류들로 갈라진 하단부에 유적이 자리잡고 있다. 고분은 원명덕마을에서 장계천을 건너 남동쪽으로 350m 남짓 떨어진 지류의 정상부와 기슭에서 조사되었다. 그 정상부에는 민묘구역을 조성하면서 유구가 훼손되어 판석형 석재가 노출되어 있고, 벽석의 일부는 민묘의 축대를 쌓는데 사용되었다. 논둑에도 역시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판석형 할석이 걸쳐 있어 논을 개간하는 과정에 다른 고분도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른 지류의 정상부와 기슭에도 고분의 벽석으로 여겨지는 할석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유구의 흔적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 이격거리 : 약 834m

14) 명덕리 누석단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317

○ 시대 : 조선

○ 개요 : 명덕리 원명덕마을 명덕천변 마을 숲에 1기가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2기가 남아있었으나 1기는 천변이 범람하면서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현지조사에서 원형의 석축기단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누석단과의 거리는 20m가량 된다. 남아있는



누석단은 종형으로 쌓았으며 중앙에 돌기둥을 세웠다. 지금은 거의 방치된 채 농자재가 주위에 산적해 있다.

○ 이격거리 : 약 339m

15) 김해김씨지비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2125

○ 시대 : 근대/일제강점기

○ 개요 : 명덕리 평지마을 앞에 휴식처로 조성된 마을 숲속에 있다. 이 비의 주인은 김해인 김중건(金重建)의 딸로 성출인 이순영(李順永)에게 시집갔으나 남편이 죽어 홀로 되었다. 부인은 장님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으며 칠성단을 두어 지극정성으로 천지신명께 기도하여 시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한다.



○ 이격거리 : 약 33m

16) 오동리 토기요지

○ 소재지 : 장계면 오동리 산 34-1번지

○ 시대 : 삼국

○ 개요 : 장계면 오동리 원오동마을의 북쪽에 있는 구릉지와 경작지에 해당된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고봉중의 하나인 구시봉(해발 1014.2m)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하단부로, 3갈래의 가지능선과 곡간부로 형성되어 있다. 즉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원오동 마을 회관에서 농로를 따라 북쪽으로 500m 가량 진행하다가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동쪽에 임야와 계단식경작지가 나온다. 중앙부에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릉지의 남쪽 절단면에 토기가마 2기가 노출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다량의 경질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 이격거리 : 약 236m

17) 명덕리 유적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175-3 일원

○ 시대 : 조선

○ 개요 : 장수 명덕리 유적은 장수 명덕리 일원에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의 발굴조사로 인해 확인된 유적으로 분청사기가마 1기, 도기가마 1기 등 총 2기의 가마와 가마 주변의 수혈유구 7기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경사면을 따라 등고선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으며 분청사기 가마의 길이가 20m가 넘는 세장한 형태이다. 남쪽으로 약 20m 떨어져 위치한 도기가마는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된 반지하식 가마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가마 이외에도 7기의 수혈유구가 조사지역의 남쪽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가마와

인접되어 축조된 점으로 보아 관련성을 가진 부속시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수 명덕리요지는 문헌기록 등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활그릇들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마의 사용시기에 있어서도 큰 시기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대략 축조연대는 14~16C 일것으로 추정된다. 1호 가마의 경우 초벌가마이므로 인근에 다른 가마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이격거리 : 약 927m

18) 오동리 고분군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792 일원

○ 시대 : 고려

○ 개요 : 장수군과 함양군의 경계를 이루는 깃대봉 북서쪽 경사면 말단부에 오동마을이 있다. 이 마을 북쪽에는 동서방향으로 뻗은 지류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 그 정상부와 남쪽 경사면에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고분은 도굴로 천정석이 유실되어, 그 내부가 드러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묘구역을 조성하면서 훼손된 것도 적지 않다. 그리고 최근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 일부 고분이 유실되었다. 고분이 분포된 지역의 범위는 동서길이 300m 내외로 넓은 편이며, 고분의 구조도 수혈식 또는 횡구식 석곽묘, 횡혈식 석실분 등 다양하다. 특히 오동마을에서 수무촌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생긴 절단면에서 남동쪽으로 150m 떨어진 남쪽 경사면에는 횡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노출되어 있다.

○ 이격거리 : 약 604m

19) 오동리 마을숲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712-1

○ 시대 : 미상

○ 개요 : 백두대간의 깃대봉 동쪽 기슭 말단부에 오동마을이 있다. 이 마을 서쪽에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분기점인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장계천이 북쪽으로 흐른다. 장수 오동리 마을 숲은 오동마을에서 북서쪽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오동2교에서 북쪽으로 20m가량 떨어진 장계천 변에 자리한다. 소나무 40여 그루로 이루어진 숲으로 오림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장수 오동리 누석단이 있다.

○ 이격거리 : 약 670m

20) 오동리 누석단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712-1

○ 시대 : 미상

○ 개요 : 오동리 원오동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실개천 건너 마을 숲안에 위치한다. 누석단을 10m 간격에 2기가 놓여 있으며 사이에는 오림정과 오림정 건립기념비 등이 있다. 종형의 누석단 중앙에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고, 전체적으로 새끼줄이 감겨 있으며, 마을 주민들에 의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 이격거리 : 약 331m

21) 전형규효행실기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573

○ 시대 : 현대

○ 개요 : 오동리 원오동마을에 있다. 전형규(全亨奎)는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고 허벅지 살을 베어 약을 만들어 바쳤다 하여 효자로 칭송받았다. 화강암을 사용하여 비각을 세우고 그 안에 '孝行實紀'를 음각한 석판을 걸었다. 이 비각은 1949년에 세웠다.

○ 이격거리 : 약 846m

22) 정기석효행실기비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689

○ 시대 : 현대

○ 개요 : 오동리 오동마을의 북서쪽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능선의 남쪽 기슭 하단부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다. 즉, 삼봉리 수무촌마을 앞 삼거리에서 오동리로 가는 도로를 따라 600m 정도 가다보면 북쪽(좌측)도로가에 자리하고 있다. 비각의 앞쪽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 함석지붕이 얹혀진 문 안쪽에 화강암을 사용하여 비각을 세우고 그 안에 효행기를 음각한 석판을 걸었다. 오동리 오동마을 입구 도로가에 있는 '전형규 효행실기비'와 모든 형태가 같은 것으로 보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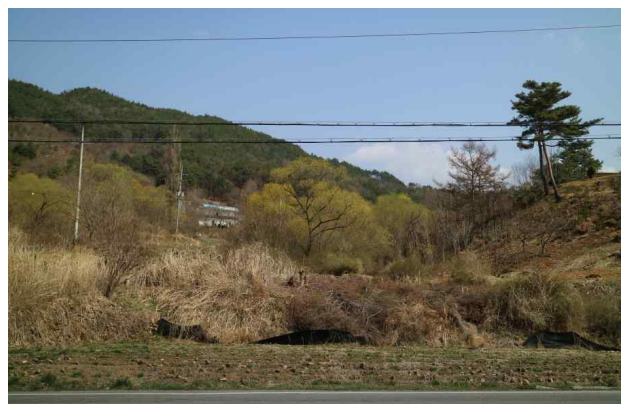
○ 이격거리 : 약 270m

23) 삼봉리 유물산포지D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40 일원

○ 시대 : 조선

○ 개요 : 평지마을에서 26번 국도를 타고 장계면 소재지 쪽으로 1km 쯤 가면 우측에 수무촌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은 깃대봉 남쪽 기슭 말단부에 입지를 두어 사방이 완만한 구릉지대로 감싸여 있다. 그리고 육십령을 넘는 동서방향의 교통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거쳐야 할 정도로 교통의 길목이다. 오래 전 논으로 개간된 남쪽을 제외한 주변은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는데, 이 마을 북쪽 밭에서 승석문이 시문된 회



청색 경질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성격은 속단할 수 없지만, 유물의 조합상이나 지형적인 속성을 통해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격거리 : 약 371m

24) 월강리 유물산포지A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304 일원

○ 시대 : 조선

○ 개요 : 월강리 도장골마을과 신내마을 사이에 장수 월강리 유물산포지 A가 있다. 신내마을 북서쪽 바람골과 도장골마을 사이의 계단식 밭에서 기벽이 두껍고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백자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혼재된 상태로 수습되었다. 바람골 북서쪽 밭을 개간하면서 생긴 절단면에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현지조사 때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조성시기가 다른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이격거리 : 약 2,300m

25) 월강리 느티나무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720-2

○ 시대 : 미상

○ 개요 : 장계면과 계북면 경계인 깃대봉(930.3m) 남서쪽 기슭 하단부에 도장골마을이 있다. 이 마을 북쪽과 남쪽에 깃대봉 정상부에서 장계분지 한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가 양쪽에서 마을을 감싸주고 있다. 이들 산줄기 중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남쪽에 장수 월강리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의 남서쪽에 느티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곳은 도장골 마을에서 신내마을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다.

○ 이격거리 : 약 2,300m

26) 월강리 고분군A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산2-28 일원

○ 시대 : 고려

○ 개요 : 월강리는 깃대봉 남서쪽부터 장계천을 넘어 계남면 호덕리 경계까지 동서로 긴 지형을 이룬다. 그 중앙에는 동서로 길게 조성된 도장골마을이 있으며, 이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km 남짓 떨어진 북서쪽 기슭에서 20여 년 전 고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도장골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일대에는 도굴로 그 내부가 드러난 여러 기의 고름장이 있었는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게 똑같이 두었다”고 하였다. 조사단에서는 이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 이격거리 : 약 1,900m

27) 월강리 유물산포지C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340-1 일원

○ 시대 : 조선

○ 개 요 : 장계면과 계북면 경계인 깃대봉(930.3m) 남서쪽 기슭 말단부에 신내마을이 있다. 이 마을 남쪽을 휘감은 산줄기와 그 북쪽 산줄기 남쪽기슭에 장수 월강리 유물산포지 C가 있다. 현지조사 때 산줄기의 정상부와 남동쪽 기슭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유물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조성시기가 다른 분묘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이격거리 : 약 2,100m

28) 삼봉리 사지

○ 소 재 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513 일원

○ 시 대 : 조선

○ 개 요 : 장계면과 계북면의 경계를 이루는 깃대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 말단부에 탑동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장계천을 따라 넓게 펼쳐진 들판과 직접 연결된 남쪽을 제외하면 사방이 지류들로 감싸여 있다. 마을 입구에는 석탑 옥개석과 석등, 부재를 가지고 쌓은 석탑과 그 주변에는 석등 중대석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석재는 마을 주변의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 나온 것을 이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한다. 조사단에서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개안사’ 혹은 ‘정토사’라는 절 이름이 전해진다는 사실 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을 주변의 밭에서 기벽이 얇은 고려시대 토기편과 청자편, 백자편, 기와편을 다량으로 수습하였다. 석탑 옥개석의 양식이나 지표 수습 유물의 속성을 종합해 볼 때, 이 절의 창건연대는 고려 초까지 올려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농경지의 경작활동으로 인해, 유구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의 규모와 창건연대를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발굴조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격거리 : 약 1,700m

29) 삼봉리 고분군A

○ 소 재 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2 일원

○ 시 대 : 삼국

○ 개 요 : 삼봉리 탑동마을 동쪽과 ‘불당골’에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탑동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남서쪽 기슭에는 도굴로 파헤쳐진 고름장이 노출되어 있었고, ‘불당골’입구의 기슭에서는 1970년대 사방사업 중 도로 만든 고름장에서 여러 점의 그릇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조사단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낙엽이 두텁게 쌓이고 수풀이 우거져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불당골’중간 지점의 밭과 계곡에서 격자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 이격거리 : 약 1,600m

30) 삼봉리 지석묘군A

○ 소 재 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88 일원

○ 시 대 : 청동기

○ 개 요 : 삼봉리 탑동마을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윤정수씨 집 뒷편에 여러 기의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깃대봉 남서쪽 기슭의 하단부로 지형이 매우 완만해 모든 지역이 민묘구역과 밭으로 개간되었다. 지석묘는 밭 중앙과 독에 입지를 두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농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일부 지석묘가 유실되었다고 한다. 상석은 모두 괴석형으로 경사면과 일치되게 동서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지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석묘의 상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밭 독에 쌓여 있으며, 밭 가운데 자리한 지석묘의 규모는 길이 180cm, 폭 137cm, 높이는 151cm이다.

○ 이격거리 : 약 1,700m

31) 탑동 석탑

○ 소 재 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449

○ 시 대 : 조선

○ 개 요 :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에 있다. 이 석탑은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다. 기단석은 최근에 시멘트로 만들었으며 이 시멘트 기단석 위에 자연석을 하나 올려 놓고 이 자연석 위에 탑신이 아닌 석등의 화사석 받침으로 추정되는 석재를 올려 놓았다. 그리고 이 석재 위에 하나의 석재를 이용하여 옥개받침과 옥개석을 조각한 정방형 130×130cm의 탑재를 올려 놓았다. 2층의 탑신도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석등의 화사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를 이용하여 그 위에 1층의 옥개석과 같은 형태의 탑재를 올려놓았다. 3층의 탑신도 1, 2층과 같은 형태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현재 이 탑의 석재들에 조각된 문양의 형태로 보아 고려말~조선초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탑신에 이용된 석재에는 복련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 이격거리 : 약 1,700m

32) 삼봉리 느티나무

○ 소 재 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428-1

○ 시 대 : 미상

○ 개 요 :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로 바로 아래에는 보호수 표지석과 나란히 삼봉리 지석묘 C가 자리하고 있으며, 5m 가량 떨어져 탑동석탑이 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平溫亭’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정자가 있어 마을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수령 510년, 수고 17m, 흉고 둘레 500cm이다.

○ 이격거리 : 약 1,700m

33) 삼봉리 지석묘군B

○ 소 재 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449 일원

○ 시 대 : 청동기

○ 개 요 :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 왼쪽에 있는 삼봉리 석탑의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것은 원형 평면의 상석으로 남북방향으로 장축을 두고 있으며, 길이 160cm, 폭 110cm, 두께 40cm이다. 이 고인돌은 상석 하부에 2매의 판석이 세워져 있어

북방식으로 추정되나 분명 하지 않다. 다른 1기는 원형 평면의 상석에 장축 방향은 동서방향이며 상석 하부에서 1개의 지석이 확인된다. 길이 150cm, 폭 100cm이며 두께는 70cm이다.

○ 이격거리 : 약 1,500m

34) 삼봉리 지석묘군C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7-1 일원

○ 시대 : 청동기

○ 개요 : 깃대봉 남서쪽 말단부에 위치한 삼봉리 탑동마을에서 남동쪽으로 350m 떨어진 곳에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탑동마을 주민들이 ‘불당골’이라 부르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입구로, 그 아래쪽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지난다. 지석묘는 고속도로에서 동쪽으로 100m 쯤 떨어진 밭 독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상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쌓여있어 본래는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석은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판석형 할석으로, 그 동쪽 부분이 약간 깨지고 현재 두 개의 지석으로 고여 있다. 상석의 장축방향은 능선의 방향과 평행되게 동서로 두었으며, 윗면에는 7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다. 길이 376cm, 폭 354cm, 높이는 76cm이다.

○ 이격거리 : 약 1,200m

35) 삼봉리 유물산포지A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414-14 일원

○ 시대 : 조선

○ 개요 : 삼봉리 골담마을 북쪽에는 동서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가 동쪽의 넓은 들판까지 뻗어내렸다. 능선은 북쪽에 자리한 탑동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능선 일대가 삼봉리 유물산포지 A에 해당된다. 골담마을을 북쪽과 동쪽에서 감싸는 능선은 곡간을 가지며 비교적 나지막한 구릉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다. 유물은 상당량 산재되어 있으며, 회청색 경질의 삼국시대 토기편, 회색 연질토기편, 자기편, 기와편도 섞여있다. 골담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의 북쪽 능선에서 오래 전 도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유적의 입지와 지표수습유물, 증언을 통해 볼 때, 이곳에는 주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고분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이격거리 : 약 1,300m

36) 삼봉리 북방식 지석묘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113

○ 시대 : 청동기

○ 개요 : 이 지석묘는 이미 학계에 조사 보고된 것으로 장계에서 대구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삼봉리 앞 도로 왼쪽 노평 들판 논 가운데에 있다. 이 지석묘의 개석은 장방형으로 두 개의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개석을 올려 놓아 북방식으로 보이는데 개석의 장축길이는 300cm이고 단축 길이는 150cm이며 두께는 75cm이다. 장축방향은 동-서이고 지

석묘는 이미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에서 발행한 <三節의 故鄕>을 보면 이 지석묘의 주위에 30여 기가 발견되었으나 지금은 불과 3기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 이격거리 : 약 1,200m

37) 삼봉리 유물산포지E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115 일원

○ 시대 : 조선

○ 개요 : 장계면과 계북면 경계인 깃대봉(930.3m)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뺀 내린 한 갈래의 산줄기가 개안동마을 북동쪽을 감싸준다. 그리고 백화산(850.9m)에서 한 갈래의 산줄기가 장계천까지 뺀내려 개안동마을 남동쪽을 휘감고 있다. 이들 산줄기 사이에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분기점인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장계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이곳은 장계분지의 동쪽 입구에 해당하여 개안동마을로 불리며, 이 마을 남서쪽에 장수 삼봉리 유물산포지 E가 자리한다. 현지조사 때 26번 국도 남서쪽 논에서 무문토기편과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고려시대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1990년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제토작업이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서 수습된 유물과 관련된 생활유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이격거리 : 약 1,200m

38) 장성운부부적선동사불망비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29

○ 시대 : 조선

○ 개요 : 삼봉리 개안동마을 남서쪽에 있다. 이 마을은 장계와 안의를 잇는 26번 국도를 경계로 둘로 나뉘는데, 이 도로의 남쪽 개안동마을 남서쪽에 자리한다. 비석은 우사 입구에 자리한 장수 삼봉리 지석묘 상석 위에 있는데, 상석 위에는 석제형 비각을 만들고 그 속에 장방형의 불망비를 세워 놓았다. 비신의 전면에는 ‘長溪負商班首張成雲夫婦積善同事不忘碑’라는 명문이 종으로 음각되어 있다.

○ 이격거리 : 약 976m

39) 벽계정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32-31

○ 시대 : 조선

○ 개요 : 삼봉리 개안동마을 동쪽의 절벽 위에 자리한다. 26번국도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도로교각 아래에 있어 찾기 어렵게 되어있다. 군내의 선비 109인이 계를 조직, 창건하였으며 다락 밑으로 흐르는 풍천의 아름다움때문에 경승으로 손꼽혔다. 이 정자는 정면 3칸(주칸거리 180cm), 측면 2칸(주칸거리180cm)



의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 이격거리 : 약 683m

40) 삼봉리산성

○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66 일원

○ 시대 : 삼국

○ 개요 : 장계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국도 남쪽에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있다. 백화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육십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장계천에 이르러 절벽을 이룬다. 성은 산정식 산성으로 '시루봉'이라고 불리는 남산에 위치하고 있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고, 평면형태는 원형을 이루며, 성의 둘레는 340m 내외이다. 산성의 남쪽 부분은 성벽의 흔적이 14m 정도가 잘 남아 있다. 성벽의 축조방식은 외면을 약간씩 다듬은 할석을 가로방향으로 놓혀 쌓았고, 산경사면을 따라 내탁식으로 축조하였다. 유물은 성 내부와 붕괴된 석재들 사이에서 삼국시대 기와와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 이격거리 : 약 1,200m

2. 장수군 장계면의 지명유래³⁰⁾

1) 장계면

삼국 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백해군(伯海郡)의 관할구역에 속했으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벽계군(碧溪郡)으로 개칭한 후에도 그 관할구역에 있었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벽계군이 벽계현으로 잠시 격하되었다가 995년(고려 성종 14)에 장계현으로 개칭되었으며 1414년(태종 14)에 장수현에 병합되었다. 이 시기에 장계면은 임현내방(任縣內坊)으로 부르다가 후에 노평(현청 소재지) 동쪽을 계동방(溪東坊) 또는 임동방(林東坊), 서쪽을 계서방(溪西坊) 또는 임서방(林西坊)으로 불렀다. 1895년 (고종 32)에 임서방을 임현내면(任縣內面)으로 고쳐 불렀다.

『여지도서』(장수)에 "임현내면(任縣內面)은 관아에서 북쪽으로 4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여도』, 『해동지도』 등에서 장계면은 '임현내면'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지형도』(장계)에서는 임현내면이 '계내면'으로 바뀌어 표기되었다. 1917년에 임현내면이 계내면(溪內面)으로 개칭되었는데, 당시 장계천 이남(현 장계리, 동남동, 남산 마을)은 계남면에 속했으나 동남동(동평들)은 장계리에, 남산 마을은 삼봉리에 편입되었다. 1993년에 계내면을 장계면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주촌(朱村)마을

장계에서 26번 국도를 따라 육십령쪽으로 4km쯤 가다 다시 오동, 대곡의 농로를 따라 3.5km쯤 거슬러 올라가면 깊숙한 산골에 40호 정도의 농가가 있는데 이 마을 만고의 충열이며, 한국여성의 귀감이 되는 의암 주논개의 태생지인 주촌마을이다. 400여년전 범바위골(주촌의 건너편에 있었다)에 사는 주달문(朱達文)이라는 학자가 이곳에 새터를 잡아

30) 장수군청, 2010, 『장수군지』.

서당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장수삼절(長水三節)이 주벽(主壁)이요, 충렬의 여신(女神)으로 추앙받는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이 마을에서 출생하여 13세까지 성장하면서 부친 주달문에게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주씨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주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의암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마을 입구에는 주논개님을 낳기 위해 공을 들였다는 성황당(造塔)이 지금도 마을의 「지키미」로 남아있다. 매년 정초가 되면 「지키미」인 조탑과 노송앞에 제수를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를 지낸다. 지금은 저수지(오동제)로 변했지만 논개님의 생가터에는 부친에게 조석으로 정화수를 떠다 드려 해수병을 낳게 했다는 약수천(藥水泉)이 남아있었다.

마을 앞 동쪽으로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민재(소백산맥)가 있다. 이 재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큰 재이며, 논개님이 어릴 때 숙부 주달무(朱達武)에 의해 풍천마을에 사는 백치불구인 김풍헌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칠혹 같은 그믐밤에 홀홀단신 이 재를 넘어 외가에 피신했다는 애절한 사연이 담겨있다. 생가지에는 장수 초대 교육감을 지낸 김상근(金相根)씨가 앞장서서 세웠다는 의랑(義娘) 주논개생장향수명불망비각(生長鄉 豎銘不忘碑閣)이 우뚝 서있다. 이렇듯 이 마을은 의암 주논개에 관한 유적과 전설이 서려 있는데, 마을 아래에 오동제(梧桐堤)를 막게 되어, 마을이 온통 제당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훨씬 위쪽에 새터를 잡아서 논개님의 생가복원을 하고 유적도 같이 옮겼다.

2) 금곡(金谷)마을(쇠키미, 쇠가마)

금곡마을과 망남(望南)마을 중간지점에 동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300여년전 동촌마을이 형성된 것을 정재호(鄭在浩)(나주정씨)라는 분이 나주에서 살다 14세의 어린나이에 양친을 잃고 부지할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문전걸식 하며 떠돌아다니다 이곳에 돌담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다보니 박, 권, 이, 유, 김씨 등이 모여들어 10여호의 취락이 형성되어 마을이름을 동촌이라 부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정재호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마을 넘어 침녕굴이 우거진 곳(현 금곡마을)에 새터를 잡아 성주하면 당대에 백석(白石)은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려 하자 까닭을 물으니, 그 터는 가마혈(釜穴) 때문에 밥이 그득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산줄기, 고개, 돌, 골짜기 등에도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뒤에 있는 산고개를 ‘곱돌고개’, 고개 아래 있는 큰 바위를 ‘우렁바위’, 맞은편 동산을 ‘월계(月桂)’, 뒤돌골짜기를 ‘노다지골’, 재넘어 골짜기를 ‘차돌배기’라고 부르면 뒷날 ‘부자방망이’가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내말을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동촌 사람들은 노인의 말대로 새터를 잡고 마을이름을 ‘쇠끼미(쇠가마, 금곡)’라 불렀다. 이 마을에는 나주정씨가 세거하면서 정금남(鄭錦南)의 사당(祠堂)을 모시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의 금곡마을에는 주변에 질이 좋은 대리석이 깔려있어 이 대리석을 개발하면서 그 옛날 노인의 선견지명을 촌로들은 목청을 돋구어가며 들려준다.

3) 무농(務農)마을(모릉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전 셋땀(봉서외동열-서문성인씨논)에 새터를 잡은 사람이 안음(安陰) 서문씨(西門氏)였고, 조금 뒤에 안터(정씨 조묘 밑)에 새터를 잡은 사람이 봉산이씨(鳳山李氏)였다고 한다. 이들이 새터를 잡았을 때에는 풍수지리상의 허점을 몰랐으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불현듯 명당자리라고해서 새터를 잡은 것

이 지금의 ‘모릉이(務農)’이다. 두 성씨가 논과 밭을 일구며 정답게 사는 사이에 충주박씨와 경주김씨가 들어와 살면서 점차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모릉이’란 말은 ‘산모서리’란 뜻이다.

4) 장계(長溪)마을

옛날 한씨가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한들(韓坪)’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으나 큰들(한들)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대평리’로 불렸다. 그 후 상대(上大:지금의 동 남동), 하대(下大:지금의 신·중·서북동)로 분리하였는데, 다시 중하대(中下大:중동), 전하대(前下大:서동), 후하대(後下大:북동)의 4개리로 분할하였다. 이렇듯 4개리로 분리되어 오다가 다시 1구(서동), 2구(중동, 신동), 3구(북동, 중샛터), 4구(동동, 남동)로 재분할 되었다. 그 후 1953년경 다시 동·서·남·북·신동 등 6개동으로 구역이 개편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계는 동부산악권의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과 진주간 고속도로가 관통되고 군산과 포항사이가 4차선으로 뚫리면 큰 도시로 발전할 전망이 크다.

5) 호덕(虎德)마을(범덕골)

호덕마을은 200년전만 해도 오솔길마저 희미하게 나 있는 첩첩산중이었다. 이곳에 마을이 생긴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한 선비가 이곳을 지나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저만치 불빛이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보니까 호랑이의 눈에서 발하는 빛이었다. 순간 선비는 놀랐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바라보니 선비를 해치려는 호랑이가 아니라 어디론가 길을 인도하려는 듯 꼬리를 흔들고 있지 않은가?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는 한발 자욱 다가섰다. 그러자 호랑이는 눈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앞서가기 시작했다. 선비는 뒤를 따라 덩불을 헤치고, 내를 건너고, 언덕을 넘어갔다. 얼마동안을 따르다보니 아담한 기와집 문 앞에 이르렀다. 순간 호랑이는 간곳이 없고 한 노인이 대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했다. 선비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로에 겹쳐 곤한 잠에 빠졌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노인도, 기와집도 간곳이 없고 누워있는 곳은 겹겹이 우거진 풀섬 위였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지난밤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산이 겹겹이 쌓여 있으나 기분은 안방에서 자고 일어난 훈훈함 바로 그것이었다. 산세를 살펴보니 뒤로는 산등성이가 포근히 웅위하고 좌우의 산봉이 이쪽으로 안아주고 있다.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물 건너 저만치에는 노적봉이 솟아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새터를 잡고 전답을 일구면서 살게 되었다. 선비가 사는 곳을 호랑이가 일러주었기에 ‘호덕’이라 이름하고 뒷산 높은 봉을 ‘악호봉(岳虎峯)’이라 하였으며 산 아래 양지바른 언덕을 ‘불당(佛堂)재’라 불렀다. 뒤에 불당재에는 불당을 지었는데 금덕사(錦德寺)이며 지금의 성관사(星觀寺)이다.

6) 침동(砦洞)마을

침동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300여년전 임실군 성수면에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고달프게 살아가던 한 과수(동래정씨(東來鄭氏)), 입장수중시조(入長水中始朝), 선교랑, 정유지(鄭惟祉)의 부인, 밀양손씨(孫氏))가 노쇠해지자 친정이 있는 위동마을 근처로 이사해서 살았다. 친정부모와 동기간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별세하여

슬픔 속에 장례준비를 분주히 하느라 행랑방 앞을 무심결에 지나다 들으니 지관이 오빠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장지가 명당자리라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욕심이 생겼다. 손씨부인은 그 길로 빈 물동이를 들고 가서 천광구덩이에 물을 길어다 부었다. 이튿날 아침 운구 전에 장사차비를 위해 장지로 떠났던 친족중의 한 사람이 급히 돌아와서 상주에게 하는 말이 명당이라던 장지의 천광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상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상주들은 지관을 불러 호통을 치고는 다른 장지를 급히 물색토록 했다. 새 장지에 무사히 장례를 치루고 돌아온 친정오빠에게 손씨부인은 그 날 밤 가련한 얼굴을 지으며 애원했다. ‘오라버니, 자식들도 아직 미거하고, 산도 없는 터에 몸은 늙어 죽어서 들어갈 곳이나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했지만 그럴 처지가 못되었는데 오늘 물구덩이라 버린 곳을 저의 신위지지로 돌려주실 수는 없을런지요?’하고 간청하자, 오빠는 순순히 응락했다. 그 후 손씨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은 이곳에 안장했다고 하며 ‘숙부인밀양손씨지묘(淑婦人密陽孫氏之墓)’라고 새겨진 비가 서 있는데 이곳이 대호명당(大虎名堂)이라는 것이다. 손씨부인의 자손들은 묘소에서 가까운 언덕아래에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며, 정씨취락을 형성하였는데 이 마을이 침동(砦東)마을이다. 침동에는 대호명당의 발음(發蔭)으로 정씨들이 세거하면서 벌족(閥族)했으나 지금은 몇집이 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3. 장수군 장계면의 전설 및 구전³¹⁾

1) 서문씨굴(西門氏窟)

장계면사무소에서 전주 가는 26번 국도를 따라 3km쯤 가면 도로 옆으로 동정(動靜)마을이 나온다. 마을 서쪽에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이 솟아 있고 아래는 푸른 내가 흐른다. 절벽에는 조선 순조조에 장수 현감을 지낸 당대의 명필가 이의성(李義聲)의 「동정대(動靜臺) 산정수동(山靜水動)」이라는 각자(刻字)가 꿈틀거린다. 그 옆에 지금은 도로공사로 많이 매워졌지만 굴이 있다. 이 굴을 서문씨굴(西門氏溜)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서문(西門)씨라는 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영남 안의현(安義縣)에서 임현내(任縣內-長溪面前身)에 이사해서 살았는데 덕망과 학식과 지략이 출중하여 주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한다. 정유재란(丁酉再亂)때 왜군이 남원성을 공략하고 갖은 노략질을 다 해가며 여세를 몰아 임현내(任縣內) 땅을 침노하매 진사 서문(進士西門)씨는 남다른 의리와 충성심을 가지고 주위의 뜻있는 사람들로 의병을 일으켜 필사의 항쟁을 했으나, 세가 불리하고 역부족이라 하는 수 없이 후일을 기약하고 이 굴에 피신해서 위급을 면했다 한다.

뒤에 후손 서문수(西門遂)는 중시조격(中始祖格)인 서문(西門)씨가 충의를 지키며 위급을 면한 이 곳에 동정대(動靜臺)라는 정자를 짓고 문중의 성지로 순례했다 하나, 지금은 굴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이 곳에 살고 있는 서문씨의 발길마저 한적하다 한다. (제보 오치황(吳治瑋), 남, 62세.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율평마을)

31) 장수군청, 2010, 『장수군지』.

2) 범덕골(虎德谷)

장계면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북으로 2km지점 도로변에 범덕골 마을이 있다. 200년 전만 해도 초장길이 겨우 나있는 첩첩 산중이었다.

옛날 어느 선비가 한양을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헤매던 차에 돌연히 눈앞에 불빛이 나타나서 찾아 갔더니 그 곳에는 커다란 천금대호가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한다. 선비는 놀라 기겁을 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한 자세로 범을 바라보니 범은 개처럼 꼬리를 저으면서 길을 인도해 줄 것 같은 동작을 보이더니 어디론가 슬금슬금 가는 것이었다. 선비는 범을 따라 덩불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서 한참 갔다.

얼마동안 가다보니 불빛이 스며 나오는 아담한 초당에 당도했다. 문 앞에 이르자 범은 간 곳 없고 집 안에서 홍안백발의 도승이 나오더니 ‘어서 오시오.’ 하며 정중하게 선비를 맞이했다.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겹치는 피로로 부지중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호랑이는 물론 친절했던 도승도 간 곳이 없고 누워 있는 곳은 겹겹이 우거진 덩불 밑 풀섶 위였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으나 분명 생시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자기 집 안방에서 자고 일어난 것 같은 훈훈한 기분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위로는 산등성이가 포근히 웅위하고 옆에는 산봉우리가 넉넉히 읊음하는 것 같고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멀리 솟은 산봉우리는 노적봉 같이 여겨졌다. 선비는 필시 범이 양자손(良子孫)할 명당을 구해 준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성주하고 전답을 일구어 살면서 범을 생각해서 뒷산 주봉을 악호봉(岳虎峯), 도승을 생각해서 악호봉 아래 양지 바른 곳을 불당골(佛堂谷)이라 했는데 지금의 성관사(星觀寺)자리라 한다. 그 뒤 선비는 부자가 되고 자손도 높은 벼슬을 했으며 사람들이 모여 들어 범덕골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제보 한규준(韓圭準), 남, 53세.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3) 대호명당(大虎名堂)

장계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2km 못 미친 침동(砦洞)마을 남쪽 200m지점 산록에 입장수(入長水)한 동래정씨(東來鄭氏) 중시조 역할을 한 밀양손씨(密陽孫氏) 부인 묘소가 있다. 이곳을 대호명당(大虎名堂)이라 부른다. 손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두 아들과 임실 등지에서 살다가 친가가 있는 장계면 위동마을 근처로 이사해서 살았다 한다. 생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나 남편 여윈 외로움을 달래면서 친정아버지와 동기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중 친정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슬펐다. 장례는 치러야했고 장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웃 마을에서 풍수(지관)를 모셔 왔다. 풍수는 주변의 산을 둘러보고 와서 친정 동기간들과 의논하는 말이 지금의 묘소자리가 명당이라는 것이다. 그 말을 엿들은 손씨 부인은 불현듯 욕심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관시(下棺時)가 빨라서 전날 천광 구덩이를 파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밤이 이슬했다. 철야꾼들도 거의 잠이 들었다 부인은 물동이를 챙겨서 슬쩍 문을 나와서는 천광 내린 장지로 향했다. 장지에 당도한 부인은 천광 구덩이가 그득할 만큼 물을 이어다 부은 뒤 물이 땅에서 솟아 오른 것처럼 흔적 없이 해놓고 돌아왔다. 이튿날 상가에서는 서둘러서 운구하여 하관을 하려 하니 장지가 물구덩이가 되었다.

화가 난 상주들은 물구덩이를 명당이라고 한 지관을 불러 흔씨검을 내고 급히 다른 곳에다 장례를 치렀다. 손씨 부인은 삼우제를 지낸 뒤에 만상주 오라버니에게 애원하듯 조

용히 말했다.

‘이 불쌍한 동생 아직 자식들도 미지하고 갈 날도 가까워오니 죽어서 들어갈 곳이나 정했으면 하는데 이 처지에 물구덩이면 어떻소. 그 자리라도 주시면 다 된 몸 신후지지(身後之地)로 치표라도 했으면 하는데요’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오라버니는 ‘그래라’하고 쉽게 허락을 했다고 한다.

얼마 후에 손씨 부인이 죽자 그 자리에 안장했다 하며 지금도 숙부인 밀양 손씨지묘라고 비가 서있다. 아무튼 그 뒤부터 정씨들은 명문호족이 됐고 손씨들은 가세가 치패됐다는 말이 전하여 딸자식 소용없다는 말도 이 때부터 유래됐다고 한다. 또한 정씨들이 번성하게 되자 손씨 묘소가 범상을 한 대호명당이라는 말과 함께 밤이면 범이 묘소를 보호해주어서 밀장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제보 한규준(韓圭準), 남, 53세.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4) 대룡소(大龍沼)

장계에서 동으로 26번 국도를 따라 육십령(六十嶺)을 넘기 전 4km 지점 우측에 무룡궁(舞龍宮)재로 이어지는 도로가 뚫렸다.

이 길을 따라서 줄곧 4km쯤 가면 충절의 여신이라 불리는 논개(論介)가 탄생한 곳 주촌마을에 이른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대곡천(大谷川)에 대룡소(大龍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사백 수십여 년 전에 주촌마을 주씨 집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에 주씨의 부인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기골이 장대한데다 용호상박하는 얼굴 형상을 하고서는 바로 윗목으로 서너 발 걸어가서 사방을 응시하는 꼴이 범상하지가 않았다 부인은 겁에 질려서 남편에게 알렸다. 주씨는 용상을 한 아이 이름을 대룡(大龍)이라 하고 이런 사실을 감추었다.

그러나 소문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퍼져서 비범한 아이를 구경 오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주씨 부부는 갑자기 걱정이 생겼다. 이런 사실이 관아에 알려지면 나라를 망칠 역적이 생겼다고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할까 두려워 견디지 못했다. 부부는 몇 날 며칠 궁리 끝에 화를 입기 전에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구석에 있던 다듬이 돌로 눌러서 죽인 뒤에 밤중에 마을 근처에 있는 소(沼)에다 던져 버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주씨가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산 너머 하늘이 어둡을 뚫고 흰히 열리더니 날개 돋친 용마가 괴상한 소리로 으르렁대고 하늘을 날며 주씨 집 상공을 한 바퀴 돌아서 대룡이를 던진 소(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차! 큰 죄를 지었구나. 장수될 아이를 죽인 게 아닌가 하고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다. 집에 와서도 주씨 부부는 여러 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이루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밤 주씨가 잠을 자는데 홍안백발 노인이 현몽해서 하는 말이「나는 너의 조상인데 나의 집(幽宅)이 장군대좌(將軍大座)라서 그 기운으로 대호군(大護軍)(지금의 大將格)을 받게 하여 얼마 안가서 불어 닥칠 나라의 환난을 평정케 하려고 용상(龍像)의 장수(將帥)를 보냈더니 네가 무지몽매해서 큰 인물을 잃었구나! 원통하다! 그러나 나의 기운이 남았으니 이번에는 여장수를 보내리라. 그러니 이번만은 우(愚)를 범하지 말고 고이 기르면 자고로 가문과 조상을 빛내고 나라에 보답할 것이며 미천한 이름으로 귀함이 하늘을 찌를 것이니라」하고는 사라졌다. 깨어보니 너무나 생시 같은 꿈이었다. 주씨 부부

는 조상이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됐다.

얼마 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부부는 배안의 아기를 소중히 여기며 태교에 열중했다. 열달 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甲戌年 甲戌月 甲戌日 甲戌時)에 딸아이를 출산했다. 학자인 주씨는 순간 전날 꿈에 현몽한 일, 생시가 사갑술(四甲戌)이라는 것들이 모두 범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술(戌)은 ‘개’ 이곳 방언에 ‘날다’를 ‘놓다’로 하기에 ‘개’를 ‘놓았’으니 「논개」라 이름 지었다.

이 분이 훗날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나라가 초토화(焦土化)되었을 때 진주성 싸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남강(南江)가 의암에서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 살신성충(殺身成忠)한 여장수 논개(女將帥 論介)라고 하며 만일 논개의 오빠 대룡(大龍)이 살았었다면 임란(壬亂)은 초전(初戰)부터 조국(祖國)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세인들이 안타까워했다 한다.

장안산(長安山) 준령에 자리한 장군대좌혈 주씨 선산은 지금도 명당으로 알려 있다 하며 대룡소는 흔적만 남았다 한다. (제보 유기열(劉琪烈), 남, 60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 육십령(六十嶺)

장계에서 동으로 26번 국도를 따라 6km쯤 가면 명덕마을에 이른다. 이곳을 지나서 60여 구비를 돌아 올라가면 소백산맥의 준령 700여m 고지에 호남과 영남을 가르는 도계 표식이 서 있다. 여기가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육십령(六十嶺)이다.

옛날에는 재가 너무도 험준하고 화적떼들이 들끓어서 재를 넘는 이는 재물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기가 일쑤였다 한다. 육십령이란 이름은 60명 이상이 모여서 넘어야 안전하게 재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또는 잣마루까지 60여 굽이가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 한다. 삼국시대에는 나제국경(羅濟國境)의 요새지로서 성터와 봉화대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 곳에 할미성(六十嶺城)의 장수 조억령(趙億齡)에 대한 애절한 사연이 전한다.

지금부터 400여년전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다. 조억령이 가솔인 유솔(劉率)과 많은 병사 장정들과 할미성과 봉수대(烽燧臺)를 지키고 있었다. 조억령 집에서는 조씨가 집을 나간 지 오래도록 소식이 없으므로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해본 바 육십령에서 성을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조씨의 부인은 남편을 찾아 나섰다. 초행길을 물어 물어 육십령을 찾아 어느 골짜기로 들어서 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난데없이 화적떼가 달려들어 부인을 붙잡아서 희롱하다 능욕한 뒤에 죽여 버렸다.

한편 조억령은 집을 나온 지도 오래되고 간밤에 꿈자리도 사나워서 병사들에게 잠시 집을 다녀와야겠다고 이르고 재를 내려오다 날이 저물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길을 재촉하는데 어두움이 깔리는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가 산발을 하고 자기 앞으로 다가왔다. 순간 섬뜩했으나 자세히 보니 자기 아내다. 깜짝 놀라 사연을 물었더니 남편을 찾아 헤매다 전날 일어났던 일을 눈물로 하소연하고 원한을 갚아달라며 사라졌다. 조씨는 꿈만 같은 현실에 터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성으로 되돌아가서 병사들과 화적떼를 도륙하고 아내의 시신을 거두어 재 아래 양지 바른 곳에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원귀(怨鬼)를 위로했다 한다.

임란 때 국토를 유린한 왜병들이 정유재란(丁酉再亂)때 호남지방을 침범하기 위해서 대부대가 육십령으로 침입해 오며, 조억령 장수는 유솔(劉率)등 병사 장정들과 육십령성(六

十領城)에서 맞아 치열한 격전을 벌여 수백 명의 왜병을 주살, 수삼차 격퇴시켰으나 혼비백산하여 퇴각하는 왜병이 숨어서 쏜 유탄에 맞아 장렬한 일생을 육십령에서 마쳤다 한다.

조장수의 시신을 뒤에 남은 병사들이 거두어서 부인의 묘소 옆에 나란히 장례 지냈다 한다. 난이 끝난 뒤에 조억령장수의 전적비를 육십령 전적지에 세웠는데 비석(碑石)은 없어지고 장수군지에 기록만 남아 있다. (제보 한용복, 남, 75세.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한거마을)

6) 주대룡(朱大龍)

옛날에 지금 장수군 장계면 주촌리에 주아무개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아들 주대룡이는 몸집이 크고 힘도 세서 장사란 말을 들었다. 날마다 아침에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장안산이란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북으로 직선거리로 30리나 떨어져 있는 통통바위라는 바위도 뛰어내렸다. 이 통통바위는 흔히 내동이라고 부르는 산골로 북쪽, 낮은 산에 있다. 내동에는 가곡리(佳谷里), 장안리(長安里), 궁양리(弓陽里)란 세 원마울과 많은 자연마울이 여기저기 있다. 이 통통바위에는 말굽 자국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말굽 자국은 주대룡이 말을 타고 뛰어내려서 생긴 자국이라고 해서 이 자국을 말발굽자국이라고 한다.

주대룡은 심이 장사고 날랜 사람이었다. 그때의 장수 현감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었다가는 나라에 큰 화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라고 했다. 포졸을 풀어 주대룡을 잡으려고 하는데 주대룡은 날쌔게 피했다. 어쩌다 잡히면 뿌리치고 도망치기도 했다. 그래도 포졸들이 잡으러 다니고, 집안사람을 성가시게 굴어, 주대룡은 이대로 살다가는 제대로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집안에 무슨 큰 화를 미치게 할지 몰라서 하루는 일부러 포졸들한테 잡혔다. 포졸들은 주대룡을 죽이려고 칼로 목을 치고 창을 찌르고 철퇴로 패고 했다. 하지만 주대룡은 하나도 상처도 나지 않았다. “나는 나라에 아무 해도 끼친 바도 없고 끼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산 것이 걱정이 된다면 내 죽어주겠지만 내 청을 하나 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무슨 청이냐 하니 죽은 시체를 본인이 사는 주촌 아무 데다 묻어 달라고 했다. 포졸들은 주대룡이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니 그리 하겠다고 선선히 대답했다. 주대룡은 버드나무 가지로 겨드랑이 밑을 세 번 때리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포졸들은 괴이쩍게 여기면서도 버드나무 가지로 주대룡의 겨드랑이 밑을 세 번 쳤다. 그러자 칼로 찔러도 죽지 않던 사람이 그냥 죽어 버렸다. 포졸들은 주대룡을 죽인 것이 하도 기뻐서 주대룡이 묻어 달라는 자리에다 묻어 줄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묻고 떼를 입혔다. 그러자 뱀의 떼는 곧 말라 죽고 오늘날까지도 그 뱀의 풀이 없는 빨건 뱀로 남아 있게 됐다.

주대룡이 이렇게 해서 죽은 뒤에 주대룡이네 집에서 딸이 났는데 이 딸이 논개라는 사람이다. 논개가 왜장을 몸소 죽여 나라에 충성을 부린 것을 보고 주대룡의 녀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주대룡이가 씨 달라는 자리에다 뱀을 쫓더라면 주대룡의 녀는 다시 남자로 태어나서 큰일을 했을 텐데 딴 데다 쫓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 주대룡의 녀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다. (제보 주제만, 남, 57세. 계남면 가곡리)

IV.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는 장수군청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장수 명덕천 재해예방사업에 앞서, 사업대상지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파괴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고 적절한 보존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887-1 ~ 명덕리 529-2 일원으로 길이는 47Km이며, 면적은 141,000m²이다.

조사단은 장수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대상지의 위치도와 현황도 등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고고·민속·역사·고건축 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명덕천 재해예방사업 부지 내에서는 고고·역사·민속자료 등과 관련된 문화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조사지역이 이미 하천정비를 통해 제방이 조성된 곳으로, 이미 지형의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덕천은 오래전부터 하천정비가 진행되어 제방이 조성된 곳으로, 이미 지형의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수군청에서 시행하는 명덕천 재해예방사업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지표조사의 경우,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구나 유물을 통해서 매장문화재의 부존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구가 발견되거나 유물이 출토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1. 1번 구간 시작지점 전경 ① (서→동 방향)



사진 2. 1번 구간(오동교) 전경 ① (동→서 방향)



사진 3. 1번 구간(오동교) 전경 ② (서→동 방향)



사진 4. 2번 구간(평지마을 명덕교) 전경 ① (북→남 방향)



사진 5. 2번 구간(평지마을 명덕교) 전경 ② (남→북 방향)



사진 6. 2번 구간 (평지마을 평지교) 전경 ① (북→남 방향)



사진 7. 2번 구간 (평지마을 평지교) 전경 ② (남→북 방향)



사진 8. 3번 구간 전경 ① (북→남 방향)



사진 9. 3번 구간 전경 ② (남→북 방향)



사진 10. 4번 구간 (양삼마을 양삼교) 전경 ① (북→남 방향)



사진 11. 4번 구간 (양삼마을 양삼교) 전경 ② (남→북 방향)



사진 12. 5번 구간 (동명마을 동명교) 전경 ① (북→남 방향)



사진 13. 5번 구간 (동명마을 동명교) 전경 ② (남→북 방향)



사진 14. 5번 구간 끝(지보교) 전경 ① (북→남 방향)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업명	장수 명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기간	2018.04.10 ~ 04.15			
	사업지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887-1 ~ 명덕리 529-2							
	면적	전체사업면적	141,000㎡		사업목적	공사로 인하여 훼손위험이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조사면적	141,000㎡						
사업시행자	기관명	장수군청			연락처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조사원	곽장근	조사원 이하	조명일 유영춘 김은희 이한나 유수빈	
		민속분야							
		수중분야							
		고건축분야							
		자연문화재							
	조사기간	2018. 04. 10 ~ 2018. 04. 15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2일, 정리분석 0.5일, 보고서 작성 1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역사 분야	5,960,68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자락정(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5호, 약 2.1km 이격)						
		비지정 문화재	할미봉 봉수 외 40개소(반경 5Km 이내)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유적 없음						
	지상문화재	기 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매장문화재	기 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건축물	기 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민속자료	기 준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신 규									
조사기관 종합 의견		명덕천 재해예방사업 공사구간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예정된 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추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구나 유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4월 일									
기관명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⑤ 시대	⑥ 종류	⑦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유	적					없	음		